

3
1980--1999년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대한의사협회

뇌사·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의료전문가 역할 선언
세계의사회장·국제여자의사회장 취임…한국의료 위상 달라져

1980년대 의협은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단체로서 역할을 뿐만 아니라 위해 간염 퇴치 캠페인(1982년), 생명구급표 및 의료정보카드 보급(1982년), 식중독 예방 캠페인(1983년), 금연 캠페인(1985년) 등을 전개했다. 메디컬 드라마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소망’이 전파를 탄 것도 1980년대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벽오지와 사각지대 환자를 위해 인술을 펼치는 의사를 발굴 및 시상하는 보령의료봉사상도 1985년 첫 시상식을 개최했다.

의료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진료실 접거와 난동이 기승을 부리자 의협은 ‘의협 공제회’ 출범을 모색했다. 의료분쟁의 위험에서 회원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 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결성한 ‘의협 공제회’는 1981년 설립, 현재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자리매김했다.

의학전문가이자 의료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려는 움직임은 뇌사에 관한 선언(1993년)과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1993년)을 비롯해 태아 성감별 방지 캠페인 등으로 표출됐다.

1985년 당시 문태준 의협 회장이 세계의사회(WMA) 회장에 취임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의협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87년 주일억 당시 한국여자의사회장이 국제여자의사회장에 취임했으며, 1988년 제39차 WHO 서태지역 총회에서 한상태 사무총장이 피선되는 등 한국의료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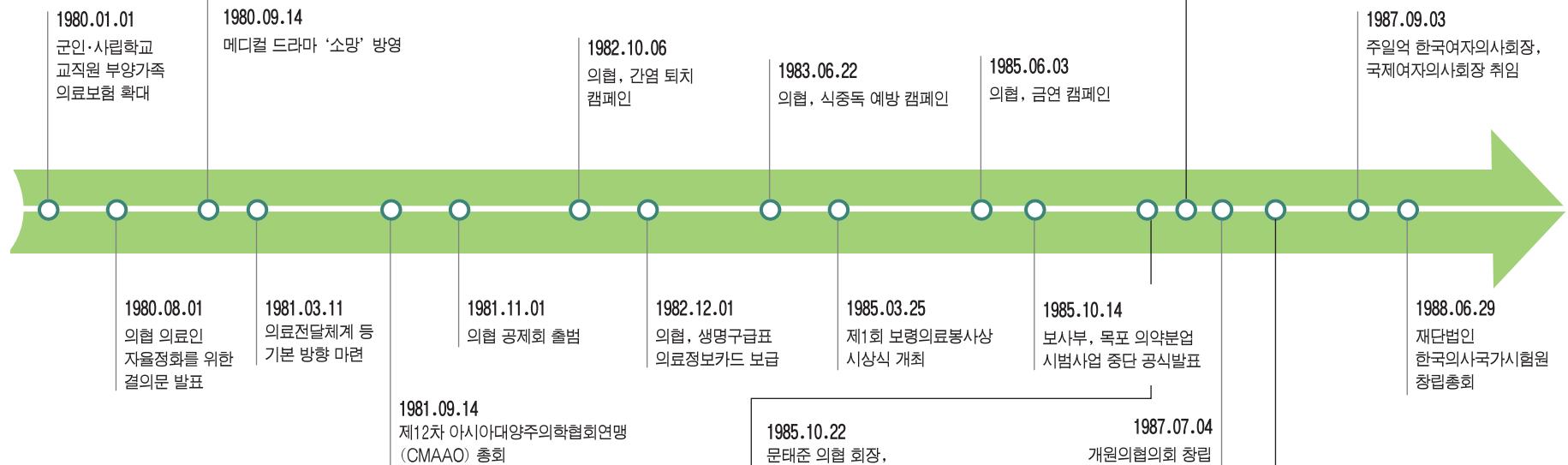
1986년 정부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의협은 1986년 6월 21일 ‘전국민 의료보험에 관한 워크숍’을 열어 전국민 의료보험에 대비한 의료보험의 방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 워크숍에는 의료계, 학계, 정당, 정부 등 관계 인사가 참석했다. ▼



▲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본격 메디컬 드라마 ‘소망’ 첫 녹화를 마친 후 문태준 의협 회장(앉은 사람 오른쪽)이 주연을 맡은 신구 씨 등 출연진 및 제작진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986. 6. 21
전국민 의료보험에 관한 워크숍



▲ 1981년 9월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대양주 의학협회 연맹(CMAAO) 총회 개회식. 문태준 당시 의협 회장이 제15대 CMAAO 회장에 취임했으며, 1985년 세계의사회장(WMA)에 취임했다.



▲ 의협은 1949년 세계의사회(WMA)에 가입하면서 국제 무대에 본격 진출했다. 1985년 벨기에 부뤼셀에서 열린 제37차 세계의사회 총회 개회식에서 문태준 의협 회장이 세계의사회장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1985년 10월 22일).



▲ 의협 집행부 임원과 서울시 각구 의사회장이 참여한 합동 수재민의료봉사반 진료팀이 충남 부여읍 근교 신리에서 주민을 진료하고 있다(1987년 7월 29일).